인 사 말

오 덕 환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존경하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원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역경 가운데에서도 용맹스러운 호랑이 기운을 받아 희망찬 웅비의 한해를 시작했던 2022년 임인년(任寅年) 한해가 어느새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었던 교육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분야에서 소통과 만남이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대면에 익숙하던 모든 생활양식이 가상세계의 삶처럼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비대면의 삶이 더 익숙해진 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던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완전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대면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채 대면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철저한 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2022년 11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Smarter food dafety technologies for new normal era”라는 주제로 제 37회 국제심포지움 및 정기학술대회를 3년만에 개최하였습니다. 총 참석인원 623명, 심포지움 구두발표 96편(국내연사 84편, 국외연사 12편), 포스터 180편을 발표하여 식품위생안전성분야에 특화된 최근 학술발표와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였으며 식품산업체에서는 부스를 20개 전시하여 식품안전관련 최근 기기와 재료들을 전시하였습니다. 특별히, 2022년 대면으로 개최한 37회 정기학술대회는 지난 2년동안 비대면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와 비교하여 보다 역동적이며 친화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참가한 회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1986년 창립)는 식품관련 타학회와 비교하여 학회역사나 회원수는 작지만 식품위생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농수축수산 원료 및 가공식품, 동물, 약학 등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술단체라는 점에서 타학회와는 현저하게 전문성과 연구목표가 차별화됩니다. 특히, 식품위생안전성분야의 전문 학술단체로서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과 정책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 식품산업 및 위생안전확보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 학회가 그 어느 학회보다도 존재가치의 중요성이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학회가 식품위생안전성분야 국내 최고학회로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않고 지속적으로 격려와 관심으로 도와주신 학회 회원여러분과 학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전현직 회장님, 임원님 및 상임이사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학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식품위생안전분야의 최고 특화된 학회로 지속 발전할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끝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주밖에 남지않은 2022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